

“2연패 간다”...KIA, 22·23일 개막시리즈 ‘V13 時작’



우승반지 전달·엠블럼 제막식...박신혜·김길리 시구 트로피·호랑이 ABR 포토존...스페셜 디자인 티켓도

KIA타이거즈가 ‘V13 時작’을 주제로 올 시즌 개막 시리즈를 화려하게 연다.

KIA는 오는 22일과 23일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리는 2025시즌 오프닝 시리즈에 ‘V13 時작’이라는 주제로 다양한 이벤트를 마련한다.

‘V13 時작’은 지난해 12번째 우승을 달성한 KIA가 12시간을 모두 채우고 다음 챔피언 13시 방향(오후 1시)으로 나아간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13시를 가리키는 시침과 분침으로 승리의 V를 형상화했다.

개막 시리즈 첫날은 지난해 통합 우승을 기념하는 우승반지 전달식으로 막을 연다. 이어서 12번째 우승 엠블럼을 공개하는 우승 엠블럼 제막식을 진행한다. 1루측 상단에는 지난해 한국시리즈 우승 엠블럼이 추가돼 총 12개의 우승 엠블럼이 걸리게 된다. 1회초 종료 후 공식교대 시간에는 12개의 우승 엠블럼과 함께하는 라인업쇼 퍼포먼스도 진행한다.

2년 연속 통합 우승을 기념하는 특별한 시구 시구 행사도 열린다. 한국시리즈 우승을 결정지은 5차전 시구자였던 배우 박신혜와

2025 하얼빈 동계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인 김길리가 그 주인공이다.

첫날 시구자로는 배우 박신혜를 초청한다. 박신혜는 이번 개막 시리즈에 다시 한번 시구자로 나서며 KIA타이거즈의 2024시즌 마지막과 2025시즌의 시작을 함께하게 됐다. 박신혜는 “KIA타이거즈 홈 개막전 시구자로 함께할 수 있어 영광이다”면서 “한국시리즈 우승을 함께했던 기운을 담아 힘찬 시구를 선보이겠다”고 전했다.

이날 애국가와 타이거즈 팬밴으로 잘 알려진 가수 이보람이 부른다. 경기 전에는 걸그룹 스테이씨의 축하 공연이 펼쳐지며, 경기 후에는 밴드 트랜스픽션과 함께하는 뒤풀이 응원전이 열린다. 트랜스픽션은 ‘광주의 함성’을 작곡한 데 이어 이날 새로운 팀 응원가를 공개한다.

이튿날인 23일 시구자는 동계 아시안게임 쇼트트랙 금메달리스트 김길리가 맡는다. 김길리는 승리 기원 시구를 통해 하얼빈에서 가져온 금메달의 기운을 선수들에게 전달한다. 메달 수여식에서 김도영의 세리머니를 따라 하며 팬임을 인증한 김길리는 “개막을 맞아 시구자로 초창기 큰 영광이다. 지난해 우승의 기운이 남아있는 마운드에 설 수 있어 설렌다”며 “경기에서 꼭 승리했으면 좋겠고, 금메달의 기운을 받아 KIA가 올 시즌에도 꼭 우승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날 경기 전에는 걸그룹 이즈나가 멋진 공연을 펼치며 개막 시리즈를 축하할 예정이다. 경기 전 팬 사인회 행사도 진행된다. 첫째 날 한국시리즈 1·2차전 MVP인 전상현과 양현종을 시작으로 둘째 날 4·5차전 MVP 김태균, 박

찬호가 사인회에 참석한다. 사인회는 선착순 80명이며, 참가 방법은 구단 공식 SNS를 통해 추후 공지할 방침이다.

불거리도 다재롭다. 중앙출입구 앞에서 한국시리즈 우승 트로피와 호랑이 ABR을 전시해 포토존으로 운영하며, 기아 EV3와 타스만 차량도 전시한다.

티켓은 오프닝시리즈 한정 스페셜 디자인 티켓으로 인쇄되며, 이날 경기장을 찾는 모든 팬들에게 한국시리즈 우승 엠블럼과 역대 한국시리즈 우승 연도가 들어간 리우저블백도 증정한다.

한편 KIA는 올 시즌 개막전부터 디지털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1루 K5석과 외야석 일부 좌석을 현장 판매할 예정이다. 이후 판매 상황을 지켜본 후 수량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계획이다.

송하중 기자 hajong2@gwangnam.co.kr

지난 15일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KIA 타이거즈-삼성 라이온즈 시범경기

‘장단 19안타 대폭발’...KIA, 시범경기 ‘4연승’

삼성에 11-5로 승리...타선 ‘활화산’ 박정우 역전타·박재현 4타수 3안타 ‘5선발 후보’ 황동하 선발투수 나서

‘디펜딩 챔피언’ KIA타이거즈가 활화산 타선을 앞세워 시범경기 4연승을 따냈다.

KIA는 16일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2025 신한 SOL Bank KBO리그 시범경기 8차전에서 삼성라이온즈에게 11-5 승리를 거뒀다. 이번 승리로 KIA는 삼성과의 홈경기 2연전을 모두 따냈고 동시에 시범경기 4연승을 달성했다.

KIA는 이날 타선을 박재현(중견수)-박정우(좌익수)-한준수(지명타자)-변우혁(3루수)-정해원(우익수)-서건창(1루수)-홍중표(2루수)-한승택(포수)-김규성(유격수)으로 짰다.

선발 투수로는 5선발 후보 황동하가 나섰다. 총 62개의 공을 던진 황동하는 4이닝 4피안타 3볼넷 4탈삼진 3실점(1자책)으로 역투했다. 최고 구속은 146km였다.

황동하는 1회초 상대 선두타자를 몸에 맞는 볼로 출루시켰다. 후속타자는 범타로 처리하는 듯했으나, 유격수가 한 번에 포구하지 못하면서 무사 1·2루가 됐다. 상대 치승준에게 안타를 허용한 뒤에는 박병호를 뜬공으로 잡아냈다. 그 사이 상대 3루 주자는 홈플레이트를 밟았다. 후속타자 전병우는 좌중간을 가리는 2루타를 때려내면서 점수를 뽑아냈다. 이후 볼넷과 뜬공으로 추가 실점한 황동하는 마지막 아웃카운트를 뜬공으로 잡아냈다.

KIA는 1회말 곧바로 추격에 나섰다. 선두타자 박재현의 중전 안타 이후 박정우도 우중간에 떨어지는 안타를 만들었다. 한준수 삼진 이후에는 변우혁이 유격수 땅볼을 기록했고, 박재현이 홈으로 들어갔다. 경기는 1-3이 됐다.

2회초 황동하는 상대 선두타자 아웃 이후 흥현 빈에게 볼넷을 내줬다. 후속타자 심재훈은 뜬공으로 잡았지만, 차승준에게 우전 안타를 맞았다. 2사 1·3루에서는 박병호를 뜬공으로 돌려세우면서 무실점으로 성공했다. 2회말에는 1사 1루 타석에 오른 한승택이 우중간을 완전히 가리는 적시타를 터트리면서 KIA가 2-3을 만들었다.

황동하는 3회초 상대 전병우와 함수호를 뜬공과 삼진으로 잡아냈다. 후속타자 김태훈에게는 안



박정우



박재현

타를 허용했으나 다시 뜬공으로 이닝을 마무리 지었다.

3회말 2사 서건창이 중견수 앞에 떨어지는 안타를 기록했다. 후속타자 홍중표 중전 안타 이후 KIA는 이중 도루를 시도했다. 그 결과 서건창이 홈으로 들어오면서 3-3 동점을 기록했다.

4회초 황동하는 삼자범퇴 이닝에 성공하면서 마운드를 내려왔다. 이어 4회말 KIA가 역전에 성공했다.

선두타자 김규성이 안타를 때려냈다. 후속타자 박재현은 삼진으로 물러났고 김규성은 도루로 2루 베이스를 훔쳤다. 타석을 이어받은 박정우는 좌중간에 떨어지는 1타점 적시타를 폭발시켰다. 한준수는 땅볼을 때렸지만, 상대 유격수 실책으로 출루했다. 1사 1·3루 상황 변우혁이 좌익수 앞에 떨어지는 적시타를 터트렸고, 경기는 5-3으로 뒤집혔다.

5회초 상대에게 1점을 내준 KIA는 5회말 다시

격자를 벌였다. 선두타자 홍중표 내야안타에 이어 한승택이 좌측을 가리는 2루타로 1점을 추가했다. 또 후속타자 김규성과 박재현이 연속 안타로 1점을 따냈고, 박정우 희생번트 이후 한준수의 땅볼로 김규성이 홈에 들어오면서 8-4가 됐다.

KIA는 6회말 3점 비이닝을 만든 뒤 7회초 상대에게 1점을 내줬다.

이후 양 팀은 추가 득점을 만들지 못하면서 경기는 11-5로 끝이 났다.

이범호 감독은 경기 후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경기에 출장한 모든 선수들이 활발하게 움직여 주면서 승리할 수 있었다. 백업선수들이 주축이 된 경기에서 이런 경기력을 보여준다면 감독으로서 시즌을 운영하는 데 큰 힘이 될 거 같다”며 “시범경기는 결과보다도 내용이 더 중요하단데 오늘은 모두 만족스러웠다. 끝까지 함께 응원해주는 팬들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송하중 기자 hajong2@gwangnam.co.kr

전남 이에서, 전국수영대회 접영 200m ‘은’

여중부 결승서 2분20초19...동광양중 8년 만 메달

전남 수영 유망주 이에서(동광양중학교 3년)가 ‘제15회 김천수영대회’에서 값진 은메달을 획득, 오는 5월 전국소년체전에서 금메달 전망을 밝혔다.

이에서는 최근 경북 김천실내수영장에서 열린 대회 여중부 접영 200m 결승에서 박래은(서울·2분18초80)에 이어 2분20초19로 은메달을 따냈다.

이날 이에서는 자신의 최대 장점인 뛰어난 돌핀킥과 지구력, 강한 후반 레이스의 장점을 살려내며 2위에 이름을 올렸다. 그의 이번 성적이 값진 이유는 ‘수영신동’으로 불렸던 왕희승(은퇴) 이후 동광양중이 8년 만에 은메달을 따냈기 때문이다.

최수욱 감독이 이끄는 동광양중 수영부는 지난해 4월 지도자로 부임한 강양호 코치 합류 이후 이에서를 배출하며 부활 신호탄을 알렸다.

올 시즌 첫 대회에서 멋진 신고식을 치른 이에서는 오는 5월 경남 김해시 일원에서 열리는 제54회 전국소년체전에 금메달을 목표로 출전



한다.

조영복 전남수영연맹 회장은 “이에서 선수의 값진 은메달은 전남 수영의 미래를 밝히는 쾌거다. 앞으로도 전남 수영 선수들이 전국에서 더욱 두각을 나타낼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과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특히 이에서와 같은 젊은 인재들이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전문적인 훈련 프로그램과 멘토링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송하중 기자 hajong2@

광주시체육회, 소년체전 꿈나무 선수 격려

역도·태권도 등 4곳 방문...“최상의 경기력 발휘하라!”

광주시체육회가 제54회 전국소년체전예선대회가 열리는 현장을 방문해 꿈나무 선수들을 격려했다.

광주시체육회는 지난 15일 전경수 시체육회장 등 임직원들이 제54회 전국소년체전 예선대회가 열린 빛고을체육관 등 4곳을 방문해 태권도, 역도, 축구, 소프트테니스 종목의 선수들을 격려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전국소년체전 광주 대표선수 선발 예선대회는 검도 등 21개 종목으로 지난 7일부터 내달 4일까지 종목별 경기장에서 열린다. 예선대회에서 선발된 선수 및 팀은 오는 5월 경상남도 일원에서 개최될 제54회 전국소년체전에 대표로 출전하게 된다.

시체육회는 올해 처음으로 소년체전 예선대회를 주관해 개최하고 엘리트체육 전문기관으로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대표선수를 선발하겠다는 방침이다.

전경수 시체육회장은 “광주체육의 미래인 꿈나무 선수들이 부상없이 최선을 다해 주길 바란다”며 “우리 선수들이 최상의 경기력을 발휘하며 다룬 지역 선수들과 선의의 경쟁을 벌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송하중 기자 hajong2@gwangnam.co.kr